

□ 교구재 해설 시나리오 (참, 작은 숲)

해설 단계	해설 주제	내용
도입	인사	안녕하세요.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선수빈입니다. 저희 교구재 이름은 참, 작은 숲입니다. 여기서 참은 참나무를 의미합니다. 참나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공생과 기생, 먹이사슬과 같은 생태계 원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외관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는 큰 상자블록과 작은 상자블록이 있습니다. 큰 상자블록은 우천시 실내에서 사용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작은 상자블록은 현장으로 이동할 때의 용의성을 고려하여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교구재의 사용방법은 먼저 상자들의 그림을 맞추어 블록놀이처럼 쌓아 올리는 활동을 합니다. 다 쌓아올리면 하나의 참나무가 완성이 되고 서랍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참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에 대해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상세 설명	흙(지렁이/개미/버섯)	먼저 아래층에는 버섯, 지렁이, 개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섯을 열어보면 실제 구름버섯을 볼 수 있고 그밖에 태블릿을 통해 다양한 버섯의 정보를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버섯 뿐만 아니라 이 블록 안에 있는 동식물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딱따구리	바로 위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면 딱따구리 모형과 집의 형태를 관찰하고 딱따구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잎/열매	이 서랍에서는 참나무의 잎과 껍질을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람쥐	다음으로 다람쥐가 들어있는 이 서랍에서는 다람쥐의 볼주머니를 활용해서 먹이를 운반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자빼기	이렇게 상자의 내용물을 살펴보고 난 후 두 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돌아가면서 상자를 하나씩 빼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자~상자를 하나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빼면 상자 윗면에는 다람쥐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때 영향을 받는 청설모와 참나무 캐릭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며 먹이사슬의 연관성과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활용사례 /의미정리	이 교구재를 통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동식물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뿐인 지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느끼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교구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